

‘예송논쟁’에 휘말려 살다 간 불우한 여인



인조 계비 장렬왕후 - 휘릉

최고의 법문은 죽음이요. 죽음 앞에선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다. 왕후장상이든 이를 없는 무지렁이든 죽음의 비중은 같다. 망자를 위한 마지막 예의가 죽음의 의식이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장엄하고 숙연한 의식이 장례다.

장렬왕후는 장례의 격식을 두고 이리저리 휘둘린 여인이다. 자신의 죽음이 아닌 타인의 죽음에 정신 없이 출연했다. 한 줌 재가 될 육신, 썩어 흙으로 돌아갈 몸을 두고 창처럼 팔을 치켜세우며 입에 거품을 무는 싸움의 중심에 그녀가 출연했다. 이른바 예송논쟁의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물론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싸움이었다.

조선 건국 후 지식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교를 비판하며,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가꿔갔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불교의 풍속을 제거하고, 이를 유교적인 것으로 대체해 나갔다.

17세기 조선에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벌어진 예송 논쟁(禮訟論爭)은 학문이 정치와 결합하면서 일어난 독특한 현상이었다. 유학에 따르면 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모든 공부의 기본이었고, 또한 모든 공부는 예의 실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정계에서 벌어진 예송논쟁은 곧 누가 통치를 담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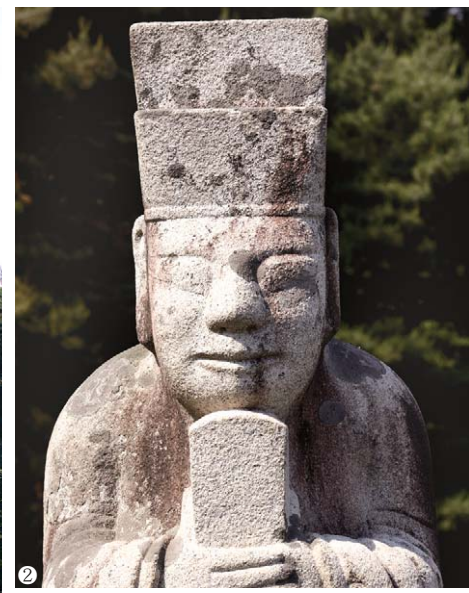
1차, 2차에 걸친 예송논쟁의 광장에 장렬왕후가 끌려나왔다. 그녀는 인조의 계비다. 원비 인열왕후가 4남 용평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자 1638년, 15세인 장렬왕후가 44세였던 인조와 가례를 올린다.

장렬왕후는 자녀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별 영향력 없이 조용히 지냈던 왕비였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할 때 장렬왕후는 26세에 불과했고 세자(효종)보다 5살이나 적었다. 효종은 1651년 계모 장렬왕후에게 자의대비라는 존호를 올려 왕보다 젊은 나이에 대비가 되었다. 자의대비가 예송논쟁에 휘말린 것은, 젊은 나이로 대비가 되어 왕실의 어른이 됐고 효종보다 오래 살아 효종의 국상이 나와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할 동안 입을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국상을 당하자 복상문제로 윤선도 등 남인과 송시열의 서인이 다툼을 벌인다. 송시열은 성리학을 근거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는 자식이 장자인 경우는 3년상을, 차자일 경우에는 1년상을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논지를 내세웠다. 효종이 차자이므로 자의대비는 1년간 상복을 입어야



1 동구릉 능역 안 가장 호젓한 곳에 자리잡은 휘릉 2 휘릉의 문인석. 왼쪽 눈은 평평하고 오른쪽 눈은 돌출되어 있다. 세태를 비판하는 석공의 의지가 반영된 듯. 3 단종의 국장을 재현한 모습.



왕보다 젊은 대비로 남·서인간의 복상 다툼 불러와 신하들 뜻에 따라 상복 입고 벗으며 쓸쓸한 삶 마감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인은 차자(次子)일지라도 왕위에 오르면 장자가 될 수 있다는 허목의 차장자설을 내세웠다. 효종이 차자지만 왕통을 이었기에 3년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1차 예송논쟁이다.

이런 경우 남인의 주장이 왕조국가에서는 맞지만, 성리학을 내세운 송시열의 주장을 내치기엔 갖 죽워했던 19세의 현종은 힘이 없었고, 선왕 효종 때부터 송시열은 이미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서인의 이런 주장이 가능했다. 조선 전기 왕권이 서술 퍼랄던 시절이라면 감히 신하가 이런 망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1차 예송논쟁은 집권세력인 서인의 승리로 돌아갔다. 현종15년(1674)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또 다시 자의대비 복상을 두고 2차 예송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머느리의 상복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2차 예송논쟁에서 서인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인선왕후를 차자부(次子婦)로 대접해 9개월 복상을 주장하고 남인은 왕비로 대우해 1년 복상을 주장한다.

이때 현종은 선왕을 감히 차자로 모고 갔던 1차 예송논쟁에 대해 불만이었고, 1차 예송논쟁에서 1년상을 주장했던 서인이 남인의 주장을 듣고 9개월로 고쳐서 올렸던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현종은 이를 추궁했고 서인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현종은 국조오례의를 따른 것인 줄 알았는데 중국의 옛날 법을 썼느냐고 분노했다. 1차 예송논쟁의 1년 복상을 3년상으로 고치고 인선왕후 복상은 1년상으로 하라고 명한다.

“신하가 되어 감히 임금에게 야박하게 굴면서 누구에게 두렵게 구는가?”

‘누구에게 두렵게 구냐’는 현종의 말은 효종이 차자라면서 1년 복상을 주장했던 송시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2차 예송논쟁은 서인의 참패였다. 서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등용된다.

6월 4일 장례를 마친 인선왕후를 둘러싼 예송논쟁의 열기가 식기도 전인 8월 18일 현종이 갑자기 승하한다. 왕조실록은 파로로 인한 변역과 설사가 심해 죽었다고 기록했다. 현종대의 실록은 남인이 쓴 <현종실록>과 서인이 집권하면서 다시 쓴 <현종개수실록>이 나올 정도로 왕조실록도 어지러운 시대였다.

조선시대 내내 전통적인 관습인 양 유교를 내세우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유교의 철감으로 공공 무장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약해진 왕권과 강해진 신권 정치가 유교를 내세우는 원인이었다.

왕권이 강했던 조선 전기는 왕이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정치를 했지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은 후기는 신권이 유학을 정치무기로 삼은 예가 바로 예송논쟁이다. 송시열이 왕보다 더 숭상했던 것은 주자였고, 송시열이 영수했던 노론의 세력이 조선후기를 장악하고 성리학을 무기로 집권했다. 송시열을 불향하는 서원이 50여 개나 됐던 것을 봐도 단순히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원은 정치세력의 발판이자 정치후보생 양성소였고 노론은 조선 후기 내내 230여 년 동안 기득권을 놓치지 않았다.

복상 소동의 원인이 됐던 자의대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의대비는 인조부터 효종, 현종, 숙종 대까지 살다가 숙종14년에 창경궁 별당에서 일생을 마친

다. 실록이란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비의 기록은 미미하다.

몇 차례의 예송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정치사건의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자의대비의 역할은 아무 것도 없었다. 꽃다운 나이에 궁에 들어와 왕비가 되지만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구궁궁을 벗어날 수 못하고 늙어죽은 전형적인 조선시대 왕실 여인의 모습이다.

자의대비는 왕실의 어른이었으나, 그녀의 삶은 신하들의 주장에 의해 상복을 1년 입으려면 1년 입고, 9개월 입으려면 입어야 하는 조선 여인의 숙명이었다. 예송논쟁에 휘말렸던 자의대비는 자식 하나 없이 66세를 일기로 승하했다. 태조 이성계가 묻힌 건원릉 바로 왼쪽 언덕에 생사 지금이나 말없이 누워있다. 비록 생전에는 논쟁들의 샅샅이에 이리저리 휘둘렸지만 죽어서는 가장 든든한 태조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휘릉(徽陵)은 조선 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 조씨의 능이다. 건원릉 능역 안에 있다. 장렬왕후는 인조의 계비에 이어 효종, 현종, 숙종 대까지 4대에 걸쳐 왕실의 어른으로 지냈다. 이 시기의 봉당정치는 장렬왕후(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설치공사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 무선마이크

현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투윈미디어의 특허품

국내최초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향기기 "앰파워 플러스" (400W급)

AC전원, USB충전, 차량 점퍼, 소형/대형용 재생, 스피커, 배터리 충전,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가능까지. (아전에도 녹화 가능함)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중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대표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 계좌번호 : 신한은행 011-229-849384 최유창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 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래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언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제,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마문
02)737-0695